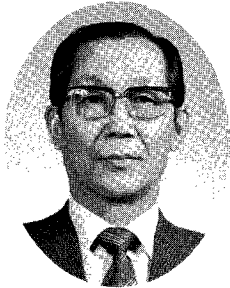


# 축산업계

소식

## 축산발전추진위원회 발족



◀ 오봉국 위원장

지난 4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축산단체, 학계, 업계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축산업의 위상정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축산발전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날 모임에서 축산업계 지도자들은 축산이 농림수산분야에 있어 전체 3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데 비해 농림행정 기구내 축산관련 직은 12~13%에 불과해 축산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사정을 위해 총력

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또한 농림수산부의 명칭을 농무부로 개칭을 적극 추진하고 축산행정조직의 확대를 통해 축산업이 정상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본회 고문이자 서울대 명예교수인 오봉국박사를 만장일치로 추진위원회의장으로 추대했다.

## 안전축산물생산운동연합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



안전축산물생산운동연합회(회장 이길재)는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운태 농림수산부장관을 비롯한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졌다. 이날 총회에서 이길재 수의학회회장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본부장에 수의과학연구소 이재진소장을 선출했다.

총회가 끝나고 학술대회에서 수의과학연구소 모인필박사가 '양계산업에서의 안전축산을 생산 방안'을 발표하여 많은 관심을 끌었다.

## 미생물검사 본격 시행

농림수산부는 육류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축산물 잔류물질검사와 함께 미생물검사도 실시키로 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8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각 시·도에 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해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되 총균수, 살모넬라균, 대장균 검사에 착수했고 내년부터는 리스테리아, 캄프로박터균도 추가하여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부는 올해 처음으로 2억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도축장과 도계장에서 작업과정별로 육류중 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하여 작업장·시설 및 작업위생의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육류의 위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식품안전예보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본부(본부장 김용문)는 지난 22일부터 식품의 올바른 생산, 취급, 운반, 구입방법과 농약이나, 중금속 등 식품관련 각종 위해정보를 사전에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식품안전예보제’를 도입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예보제 도입 첫 사업으로 지난 22일 ‘여름철 음식물 취급 및 보관요령’ 홍보물을 10만부 인쇄해 6개 지방 식품·의약품청, 시·도보건소, 식품관련협회, 한국도로공사 등에 배포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지시했다.

이 홍보물에서 우리나라의 여름은 고온다습해서 식중독사고가 여름철에 발생하고 있으나 보관·관리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여름철 음식물 취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 다 음 -

식품명	냉 장 보 관		냉 동 보 관	
	온도	기간	온도	기간
우유(살균제품)	0~10℃	5일		
쇠고기	-2~0℃	14일	-18℃이하	6개월
돼지고기	"	"	"	4개월
닭고기, 기타식육	"	10일	"	3개월
어육가공품(살균제품)	10℃이하	15일		
두부, 목	"	3일		
유산균음료	0~10℃	7일		
탁주(비살균)	"	5일		
과일류(사과, 배 등)	3~6℃	1~2주일		
채소류(배추, 상추 등)	7~10℃	2~5일		
생선 어패류	3~6℃	2~3일	-18℃이하	3개월

▲ 냉장·냉동고를 과신하지 말것. 냉장고는 식품중의 미생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증식을 억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냉장고에 보관중인 음식물도 변질이나 부패될 수 있다. 따라서 제품별로 정해진 보관온도 및 기간을 지켜야 한다, 또 조리된 식품이 어패류 등 생식품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냉동식품은 한번 해동한뒤 다시 냉동하지 말고, 주 1회정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한다.

▲ 냉장·냉동고에 보관하지 않는 식품은 햇빛이 직접 비치는곳, 습기나 온도가 높은 곳에 두지 않는다. 곰팡이가 있는 음식은 미련없이 버린다. 찌그러지거나 부풀 통조림은 이상유무를 반드시 확인한다.

▲ 설사환자나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음식물을 조리하지 않도록 하고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생선, 조개, 닭고기 등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으 씻는다. 식품은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 한국농어민신문

#### 농림수산부 장관 초청 조찬모임 개최

한국농어민신문(대표 황민영)은 지난 12일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강운태 농림수산부 장관초청 조찬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본회 최주구 회장을 비롯한 농업관련 각계 인사 1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세계화 시대 - 농정개혁과 21세기 농업비전’을 연제로 강연한



강운태 장관은 21세기에 대한 농업전망, 21세기 농정 과제, 2004년의 농어촌 모습 등에 대한 강연을 통해 농어촌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강연이 끝나고 농업전반에대한 문제점을 놓고 각계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 '95농업총조사 속보 결과

농림수산부에서는 '95. 12. 1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농가를 직접 방문·조사한 '95농업 총조사(센서스) 속보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다 음 -

- ▲ 농업인구 형태가 재촌탈농형으로 전환
  - 재촌탈농형 인구 이동
  - 농촌인구 감소추세의 둔화
  - 전업과 겸업농가로 분화
- ▲ 농업경영구조의 재조정
  - 농업경영의 전문화
  - 농업경영 규모의 확대
  - 상업 영농체제의 정착
- ▲ 농가인구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 생산연령, 인구 및 경제활동 참가비중 증가
  - 고령의 영세농 탈농과 40대 이하 중농층의 경영 규모확대 전망
  - 전업과 겸업농가로 분화

### 농어촌 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 사항 발간

농림수산부는 6월14일자로 “농어촌 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 이 확정·시행 된지 2년이 되어 제4차 농정개혁 회의 보고서인 “농어촌 발전대책·및 농정개혁 추진상황”을 지난 6월24일자로 발간했다.

내용은 농림수산부, 내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추진하는 내용을 수록했다.

### 내년 축산예산 2백 28억감소

정부는 축발기금을 제외한 내년도 예산을 올해 2천4백84억 1천4백만원 보다 2백27억9천7백만원이 줄었다. 2천2백56억1천7백만원으로 계상 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농림수산부는 축산사업부문에 농축회계에서 1천9백64억3백만원, 재특회계 2백88억원, 일반회계 4억1천4백만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

### 축산신문

#### 국회농림수산위 3당간사 초청오찬 갑담회

축산신문(대표 윤봉중)은 이상배(신한국당)의원, 이길재(국민회의)의원, 정일영(자민련)의원 등과 생산자 단체·학계 및 업계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지난 18일 중국음식점 외벽에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부가세영세율과 관련,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축산인들의 숙원임에도 정부가 세수결함을 이유로 전면적용을 기피

## • 축산업계 소식

하고 있다며 농림수산위기가 의원입법을 통해 양축농민들의 숙원을 풀어줄 것을 건의했고,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축산물가공업의 일원화와 함께 축산관련 행정기구를 개선·정예화를 적극 뒷받침해야한다역설하고, 농무부로 개칭하면 축소된 사료관련 행정 및 연구기능을 대폭 확충하는데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종계부화산업발전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 노태모씨 회장에 선출



종계부화산업의 당면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족된 종계부화산업발전협의회(회장 노태모)가 지난 24일 제일호텔 크리스탈룸(온양소재)에서 전국종계부화인 및 인사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총회에서는 노태모 준비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본회 최준구 회장이 축사를 낭독하였으며, 경과보고와 회칙채택을 거쳐 임원선출이 있었다.

한편 제2부행사로 실시된 세미나에서는 오경

록(남덕씨니테크) 대표가 '최근 가금질병 발생 동향과 수입종란에 따른 외래성 질병'을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

#### 임원명단

고문 : 김교석(우화부회장)

회장 : 노태모(성현부회장)

부회장 : 김호섭(강남부회장), 오무제(수일농장), 박천석(신기농장)

사무총장 : 이광초(경인축산)

감사 : 함경섭(대산농장), 민균홍(충청농장)

운영위원 : 광익신(호일농장), 김동식(조은부회장), 김우호(양지부회장), 김익균(삼성농장), 김충수(삼화농원), 김태환(중원농장), 윤정로(독바위농장), 이언중(신영농장), 이종철(하나농장), 정청(한일농원), 최성갑(도원농장), 한익교(한흥부회장)

### 한국은행

#### 국산기자재 구입시 외환자금 지원

한국은행은 7월 1일부터 농축관련 국산기자재 구입시에 외환자금을 총 25억달러 규모로 국산기계를 구입하는 업체에 외환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금리는 런던은행간 금리에 1.0~1.5%를 덧붙인 연 7% 수준으로 국내자금을 빌릴때보다 연 4~5%정도 수준이다.

대출조건중 하나는 국산기계의 제작자나 구매자 가운데 한쪽이 중소기업이어야 가능하며 구매자가 중소기업이면 전액, 대기업이면 70%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고 알려졌다.